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기후·에너지정책

◆ 덴마크, 세계 기후변화 대응지수(CCPI) 5년 연속 최고 순위 유지(주덴마크대사관)

- 덴마크 공공·민간 협력기구(State of Green)은 11.19 보도자료를 통해 덴마크가 COP30에서 공개된 세계 기후변화 대응지수(CCPI)에서 5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발표함. CCPI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충분한 조치를 이행한 국가가 없음을 반영하여 1-3위를 공란으로 두고 있어, 덴마크는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에 해당함.

※ CCPI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63개국과 EU를 대상으로 △온실가스 배출 △재생에너지 △에너지 사용 △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을 평가하는 지수로 독일워치(Germanwatch), NewClimate Institute, Climate Action Network 등이 공동 개발. 동 지수는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국가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비교 도구로 활용

-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분야 매우 우수(Very High), 기후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 우수(High) 평가를 받아 선도국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으며, 북해 및 발트해 지역의 해상풍력 개발 성과와 민간 전기차 보급 확대가 긍정 요인으로 평가됨. 다만, 지방정부 단위의 이행 속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, 2035년 감축 목표 상향, 기후재원 조달 확대, 적응 및 손실·피해 대응 강화 등이 권고

신재생에너지

◆ 독일, 덴마크産 그린수소 지원에 100억 DKK 투자 계획(주덴마크대사관)

- 덴마크 녹색 산업단체 Green Power Denmark는 11.17 독일 정부가 덴마크산 그린수소의 수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 DKK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.

- 이번 지원은 유럽 수소은행 정책(European Hydrogen Bank)*의 확장된 형태로 운영되며, 12월 초 입찰 공고가 열릴 것으로 전망

*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부터 추진한 금융·보조금 제도(financing instrument)로, 유럽 내 수소 생산-수입 연결, 투자 위험 완화, 시장 형성 촉진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유럽 수소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추진

- 상기 단체는 독일의 지원은 △양국 간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△그린수소 도입 비용 격차 해소 △독일 산업수요(철강 등) 기반의 장기 구매시장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, 최근 독일 내 경기둔화 및 구매력 불확실성으로 시장 형성에 우려가 있었으나, 이번 조치가 덴마크 생산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함.

- 덴 국영 전력망 운영기관(Energinet)은 2026.1월부터 관련 수소 파이프라인 용량 예약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, 2027.1월까지 최소 500MW 계약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. 끝.